

2027
고2 문학
비상

2027 고2 문학 비상 | 1(2)(1) 빙그레의 영역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인식 변화**란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변화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작가의 생각이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달라졌지?



음... **과거**에는 꽃이나 초콜릿처럼 **금방 사라지는 선물**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선물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선물이 되는 순간**'이 중요하다는 뜻이란다. 즉, 선물을 건네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표정**이 더해져 평범한 사물이 비로소 특별한 '**선물**'이 된다는 거지. 이것이 작가가 깨달은 **선물의 새로운 의미**이자, 이 글의 주제란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글의 제목인 「**빙그레의 영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공간적 의미로는 **선물들이 놓여 있는 작가의 방** 창가 선반 혹은 **작가의 방**을 의미한단다. 시간적 의미로는 **선물들을 쳐다보며 선물을 받았을 때의 경험을 떠올리는 시간**이자 **선물들을 청소하며 선물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을 의미한단다.



네~ 그러면 이 글은 문학의 세 가지 기능(미적 기능,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중 어떤 기능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걸까요? 아름다운 글이라서 '**미적 기능**'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딱 한 가지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 작품이 ‘선물’이라는 평범한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인식적 기능’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어. 독자가 기존에 알던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거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라고 한단다.



2027
고2 문학
비상

2027 고2 문학 비상 | 1(2)(1) 빙그레의 영역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사라지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게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작가의 일반적이지 않은 취향 소개로 흥미를 유발함.)

꽃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연필 같은 것. 남지 않는 것들. 그걸 영영 간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선물이라야 주고받는 마음이 홀가분했다. 사물에 사연이 쌓여 가서 추억이 사물보다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풍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시절의 나는 여렸던 것임이 틀림없다. 실은 선물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 나 자신의 여림에 대한 불만 쪽에 더 가까운 심사였을 것이다.

▶ 과거에 선물을 대하던 태도 ① - 사라지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이 더 좋음.

선물은 받는 게 더 좋다, 주는 게 더 좋다, 이 둘을 놓고 “너는 어느 쪽이니?” 하며 누군가와 대화를 해 보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도무지 주는 게 더 좋다고 선택하는 멋진 이들에게 백 프로 공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작가는 과거에 선물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선물을 대하던 태도 ② - 선물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말해 보고 싶다. 선물은 주거나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되는 것(작가의 선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 현재의 ‘나’가 ‘선물’을 대하는 태도를 묻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라고. 선물이 되는 사건, 선물이 되는 시간, 선물이 되는 사람, 선물이 되는 말, 선물이 되는 표정.(선물이 ‘되는’ 것이기 위한 요소) 선물이 되는 사람이 선물이 되는 말과 함께 선물이 되는 표정을 지으며, 자그마하고 사소한 선물 하나를 건넬 때, 그것은 선물이 되는 시간이자 선물이 되는 사건이다. 그때 손과 손 사이에서 전달되는 사물 하나는 그 무엇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 선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 - 선물은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임.

지금 내 방은 그러한 사소한 선물이었던 사물들의 소곤거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방에 담겨진 나는 그 소곤거림을 배경 음악처럼 등에 업고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그럴 때 나의 글쓰기는 어쩌면 대답 같은 것이고 어쩌면 약속 같은 것이고 어쩌면 즐거운 받아쓰기 같다.

▶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 함께하는 일상

베이징을 여행했던 선배가 “왕창 사 와서 다 주고 하나 남았어.”라며 건네준 마오쩌둥이 그려진 케이스, 몽골 여행을 다녀온 후배가 “갖고 싶다던 게 이거예요?” 하던 게르 미니어처, “언니 목마 좋아하잖아.”라며 갖고 있던 소품을 선물 건네준 후배, 재활용 쇼핑백을 잘라서 엮은 항아리를 노숙인들의 벼룩시장에서 샀다며, 한 시간이 넘게 나를 기다려 건네주고 간 친구, 이 용도를 알아맞혀 보라며 방긋 웃으며 친구가 건네준 부엉이 모양의 연필깎이, 받는 나보다 주는 그 사람이 더 오래 매만지며 즐거워했던, 오래전 생일 선물로 받았던 목재 오르골, 돌멩이 하나, 도토리 하나, 저금통 하나…….

▶ 사연이 담긴 작은 선물들

적어 내려가다 보니, 선물이 선물답게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다. 선물을 건네면서 해 준 한마디. 농담처럼 던졌든, 지나가듯 말했든, 진지하고 가열하게 자신의 안목을 침 튀기며 피력했던 간에, 선물을 쳐다볼 때마다 저절로 떠오른다. 그 한마디와 더불어 그 표정도.(선물을 받을 때의 기억)

▶ 선물이 선물답게 되는 비결

그러면 나는 빙그레 웃고야 만다. 아마도 이 선물들이 내 방 창가 선반에 쫄쫄 놓여 있지 않았다면, 혼자 있는 내 방에서 빙그레 혼자서 웃고 있을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내가 이 사물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때의 그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며 자주 웃는다는 걸. 청소를 하며 먼지를 닦아 줄 때마다 옆의

사물에게 소개해 주듯 말을 건넨다는 걸. 빙그레 웃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작가가 동의할 내용을 묻는 문제에 '선물을 추억하는 혼자만의 시간도 선물이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선물의 현재적 의미 발견 - 받은 선물에 얹힌 추억을 떠올림.

나는 지금 라디오(친구에게 선물로 주려는 것이자 선물로 받았던 물건. '라디오'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추억 회상의 매개체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를 하나 골라야 한다. 이사한 친구에게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고 '라디오'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디오를 고르자니, 그 동네는 FM의 주파수가 쉽게 잡히는 동네일지 아닐지, 그 새로운 집은 어떤 디자인의 라디오가 어울리는 공간일지, 하나부터 열까지 친구가 사는 환경에 대해 상상하게 되었다.]([]: 선물을 고르며 상대의 처지를 헤아림.) 라디오를 고르다 보니 내가 선물로 받았던 라디오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내가 꼭 갖고 싶어 하던 그 모델을 몇 년 동안 벌려서(어떤 일을 이루려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회를 엿보아서) 기어이 선물로 내밀었던 친구. 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지내 온 시간들. 라디오가 낡아 가는 만큼 우리가 깊이 친해지고 있다는 게 새삼스럽다. 이 낡아 가는 라디오의 안부를 오늘은 친구에게 전해 주어야겠다. 인증 사진을 찍어서 그때를 함께 새삼스레 떠올려 보고 싶어 서. 친구는 친구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내가 있는 이 방에서. 우리가 동시에 함께 떠올릴 사연과 감정이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르며 선물의 의미를 생각하는 '나'

- 김소연, 「빙그레의 영역」(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작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글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제목의 뜻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027
고2 문학
비상

2027 고2 문학 비상 | 1(2)(1) 빙그레의 영역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문학의 인식적 기능

작가
현실의 모습이나 대상을 새롭게 인식 하여 발견 한 의미를 형상화함.
독자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알던 것을 새롭게 인식 함.
↓
문학은 인간 과 세계 에 대한 이해를 도움.

2. 작품 개관

갈래	경수필
성격	체험적, 성찰적 , 회고적
제재	빙그레 의 영역을 만든 선물들
주제	선물이 선물답게 되는 비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 사물에서 얻은 작가의 깨달음을 전달함. 체험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드러냄.

3. '선물'에 대한 작가의 인식 변화

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영 간직하거나 사연이 쌓이지 않게 사라지는 선물이 좋음. 사물에 사연이 쌓여 추억이 거대해지는 게 무답스러움. 선물을 주는 것보다 받는 쪽이 좋음.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물이 무엇이나보다 선물이 '되는데' 사건, 시간, 사람, 말, 표정이 중요함. 선물에 담긴 사연과 추억을 행복하게 떠올리게 됨. 선물을 주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됨.

TEST 1단계

1. 문학의 인식적 기능

작가
현실의 모습이나 대상을 □□게 □식하여 □견한 의미를 형상화함.
독자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알던 것을 □□게 □식함.
↓
문학은 □간과 □계에 대한 이해를 도움.

3. '선물'에 대한 작가의 인식 변화

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영 간직하거나 사연이 쌓이지 않게 □라□는 선물이 좋음. 사물에 사연이 쌓여 추□이 거대해지는 게 부□스러움. 선물을 □는 □보다 □는 □이 좋음.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물이 무엇이나보다 선물이 '□는' 사건, 시간, 사람, □, 표정이 중요함. 선물에 담긴 □연과 □역을 행복하게 떠올리게 됨. 선물을 □는 □의 의미를 깨닫게 됨.

2. 작품 개관

갈래	□□필
성격	체험적, □찰□, 회고적
제재	□□레의 영역을 만든 선물들
주제	선물이 □물답게 되는 비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 사물에서 얻은 작가의 □□음을 전달함. 체험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식의 □화를 드러냄.

TEST 2단계

1. 문학의 인식적 기능

작가
현실의 모습이나 대상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하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한 의미를 형상화함.
독자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알던 것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함.
↓
문학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에 대한 이해를 도움.

3. '선물'에 대한 작가의 인식 변화

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영 간직하거나 사연이 쌓이지 않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는 선물이 좋음. 사물에 사연이 쌓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이 거대해지는 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스러움. 선물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보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이 좋음.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물이 무엇이나보다 선물이 'ㄷ ㄴ' 사건, 시간, 사람, <input type="text"/>, 표정이 중요함. 선물에 담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을 행복하게 떠올리게 됨. 선물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의 의미를 깨닫게 됨.

2. 작품 개관

갈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성격	체험적,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회고적
제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의 영역을 만든 선물들
주제	선물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답게 되는 비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 사물에서 얻은 작가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을 전달함. 체험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를 드러냄.

TEST 3단계

1. 문학의 인식적 기능

작가
현실의 모습이나 대상을 □□□ □□하여 □□한 의미를 형상화함.
독자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알던 것을 □□□ □□함.
↓
문학은 □□과 □□에 대한 이해를 도움.

3. ‘선물’에 대한 작가의 인식 변화

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영 간직하거나 사연이 쌓이지 않게 □□□는 선물이 좋음. 사물에 사연이 쌓여 □□이 거대해지는 게 □□스러움. 선물을 □□ □보다 □□ □이 좋음.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물이 무엇이나보다 선물이 ‘□□’ 사건, 시간, 사람, □, 표정이 중요함. 선물에 담긴 □□과 □□을 행복하게 떠올리게 됨. 선물을 □□ □의 의미를 깨닫게 됨.

2. 작품 개관

갈래	□□□
성격	체험적, □□□, 회고적
제재	□□□의 영역을 만든 선물들
주제	선물이 □□답게 되는 비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 사물에서 얻은 작가의 □□□을 전달함. 체험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의 □□를 드러냄.

TEST 4단계

1. 문학의 인식적 기능

작가
현실의 모습이나 대상을 _____ 하여 _____ 한 의미를 형상화함.
독자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알던 것을 _____ 함.
↓
문학은 _____ 과 _____ 에 대한 이해를 도움.

3. '선물'에 대한 작가의 인식 변화

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영 간직하거나 사연이 쌓이지 않게 _____ 는 선물이 좋음. • 사물에 사연이 쌓여 _____ 이 거대해지는 게 _____ 스러움. • 선물을 _____ 보다 _____ 이 좋음.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이 무엇이나보다 선물이 '_____ ' 사건, 시간, 사람, _____, 표정이 중요함. • 선물에 담긴 _____ 과 _____ 을 행복하게 떠올리게 됨. • 선물을 _____ 의 의미를 깨닫게 됨.

2. 작품 개관

갈래	_____
성격	체험적, _____, 회고적
제재	_____의 영역을 만든 선물들
주제	선물이 _____답게 되는 비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사물에서 얻은 작가의 _____ 을 전달함. • 체험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_____ 의 _____ 를 드러냄.

O / X 문제

【1~5】 「빙그레의 영역」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 1. 이 글은 작가가 허구로 지어낸 상상의 이야기이다. (O / X)
- 2. 작가는 과거에 사라지는 선물을 더 좋아했다. (O / X)
- 3. 현재 작가는 선물이란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O / X)
- 4. 작가는 선물의 가치가 사물 자체에 있다고 본다. (O / X)
- 5. 작가는 글의 서두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취향을 소개하며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O / X)

1. X 2. O 3. X 4. X 5. O

2027
고2 문학
비상

2027 고2 문학 비상 | 1(2)(1) 빙그레의 영역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사라지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게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꽃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연필 같은 것. 남지 않는 것들. 그걸 영영 간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선물이라야 주고받는 마음이 홀가분했다. 사물에 사연이 쌓여 가서 추억이 사물보다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풍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시절의 나는 여렸던 것임이 틀림없다. 실은 선물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 나 자신의 여림에 대한 불만 쪽에 더 가까운 심사였을 것이다.

선물은 받는 게 더 좋다, 주는 게 더 좋다, 이 둘을 놓고 “너는 어느 쪽이니?” 하며 누군가와 대화를 해 보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도무지 주는 게 더 좋다고 선택하는 멋진 이들에게 백 프로 공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말해 보고 싶다. 선물은 주거나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되는 것이라고. 선물이 되는 사건, 선물이 되는 시간, 선물이 되는 사람, 선물이 되는 말, 선물이 되는 표정. 선물이 되는 사람이 선물이 되는 말과 함께 선물이 되는 표정을 지으며, 자그마하고 사소한 선물 하나를 건넬 때, 그것은 선물이 되는 시간이자 선물이 되는 사건이다. 그때 손과 손 사이에서 전달되는 사물 하나는 그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다.

지금 내 방은 그러한 사소한 선물이었던 사물들의 소곤거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방에 담겨진 나는 그 소곤거림을 배경 음악처럼 등에 업고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그럴 때 나의 글쓰기는 어쩌면 대답 같은 것이고 어쩌면 약속 같은 것이고 어쩌면 즐거운 받아쓰기 같다.

베이징을 여행했던 선배가 “왕창 사 와서 다 주고 하나 남았어.”라며 건네준 마오쩌둥이 그려진 케이스, 몽골 여행을 다녀온 후배가 “갖고 싶다던 게 이거예요?” 하던 게르 미니어처, “언니 목마 좋아하잖아.”라며 갖고 있던 소품을 선뜻 건네준 후배, 재활용 쇼핑백을 잘라서 엮은 향아리를 노숙인들의 벼룩시장에서 샀다며, 한 시간이 넘게 나를 기다려 건네주고 간 친구, 이 용도를 알아맞혀 보라며 방긋 웃으며 친구가 건네준 부엉이 모양의 연필깎이, 받는 나보다 주는 그 사람이 더 오래 매만지며 즐거워했던, 오래전 생일 선물로 받았던 목재

오르골, 돌멩이 하나, 도토리 하나, 저금통 하나…….

적어 내려가다 보니, 선물이 선물답게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다. 선물을 건네면서 해 준 한마디. 농담처럼 던졌든, 지나가듯 말했든, 진지하고 가열하게 자신의 안목을 침 튀기며 피력했든 간에, 선물을 쳐다볼 때마다 저절로 떠오른다. 그 한마디와 더불어 그 표정도.

그러면 나는 빙그레 웃고야 만다. 아마도 이 선물들이 내 방 창가 선반에 쏘르륵 놓여 있지 않았다면, 혼자 있는 내 방에서 빙그레 혼자서 웃고 있을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내가 이 사물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때의 그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며 자주 웃는다는 걸. 청소를 하며 먼지를 닦아 줄 때마다 옆의 사물에게 소개해 주듯 말을 건넨다는 걸. 빙그레 웃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라디오를 하나 골라야 한다. 이사한 친구에게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고 ‘라디오’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디오를 고르자니, 그 동네는 FM의 주파수가 쉽게 잡히는 동네일지 아닐지, 그 새로운 집은 어떤 디자인의 라디오가 어울리는 공간일지, 하나부터 열까지 친구가 사는 환경에 대해 상상하게 되었다. 라디오를 고르다 보니 내가 선물로 받았던 라디오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내가 꼭 갖고 싶어 하던 그 모델을 몇 년 동안 별려서 기어이 선물로 내밀었던 친구. 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지내 온 시간들. 라디오가 낡아 가는 만큼 우리가 깊이 친해지고 있다는 게 새삼스럽다. 이 낡아 가는 라디오의 안부를 오늘은 친구에게 전해 주어야겠다. 인증 사진을 찍어서 그때를 함께 새삼스레 떠올려 보고 싶어서. 친구는 친구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내가 있는 이 방에서. 우리가 동시에 함께 떠올릴 사연과 감정이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 김소연, 「빙그레의 영역」